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한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 인식*

한수진(韓水眞)**

이지연(李之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하여 청소년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내용과 차원이 어떠한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념도 연구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는 52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청소년은 진술문의 내용을 경험적 인식과 경험적 관계,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2개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사성을 기준으로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청소년들은 진술문 전체 평균 중요도로 중요하다(5점 기준으로 3.9)에 근접하게 평가하였고, 군집 중에서는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M=4.26$)와 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M=4.09$)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집된 결과이며, 통합교육 조건에서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 연구 및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장애수용태도, 청소년, 개념도 연구법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I. 서론

장애청소년과의 통합교육은 청소년이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은 통합 환경에서 장애청소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편견 없이 수용하게 되며 나아가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하게 된다(이소현, 박은혜, 2002). 만약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장애청소년과 놀고 어울리는 경험과 기회가 제한된다면 청소년들은 장애청소년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장애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데 중요한 저해 요소가 된다.

통합교육 현장의 가장 빈번한 문제점은 누구나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교육에서 장애 청소년들은 고립감, 낮은 자존감 형성, 학교생활의 불만족 등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학교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김경희, 2002). 장애청소년들의 어려움은 전·입학 과정에서의 거절 경험 등 통합교육의 기회에서부터 특수학교에 비해 열악한 편의 시설 등 학교의 물리적 환경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또래의 이해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으로 통합된 학교 상황에서 장애청소년은 빈번히 청소년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놀이에서 조차 소외당하거나, 학부모 및 교사 역시 학급에서 장애청소년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은 오히려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보통 간과되고 있지만, 교사들은 통합학급에서 청소년들도 장애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학습활동 지연 혹은 방해가 가장 심각하고, 과잉행동에 따른 활동 방해나 신체적 상해, 늘 도와줘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지적한다. 청소년들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장애청소년의 산만함과 공격적 행동과 지원인력의 부족, 협력교수의 부진을 꼽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통합교육 실현의 중요한 변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일반 교사와 청소년들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에 달려있으며, 이것은 교사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 혹은 교육 과정적 전략보다도 통합의 성공을 결정짓는 유력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배현주, 2008). 통합교육 제안자들은 청소년들이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의 중요한 측면이며, 일부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의 문제는 통합교육의 성공적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한다(Townsend, Wilton, & Vakili, 1993; 안은주, 2014에서 인용). 또한 청소년의 긍정적 장

애수용태도는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교육적 효과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통합교육의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자원이라고 제시하였다(Bishop, 1986; 민정현, 2011에서 재인용).

통합교육은 장애청소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장애청소년을 수용하는 능력이 촉진되고 장애청소년과 청소년간의 유사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통합교육의 목적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역동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장애청소년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활동과 상호작용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이 갖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최성규, 오원석, 허명진, 송혜경, 2008).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인 이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는 생의 발달과정에서 다른 시기보다 불안을 많이 느끼고 동요를 거듭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진미옥, 2004). 청소년기는 신체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자아 정체성의 확립, 인지능력의 발달, 친밀감과 성취감 등의 사회성 발달, 자율성의 발달, 가치관의 발달 내면화 등의 생애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나름대로 주관적인 태도를 형성해 가는 학령기이며(임상열, 2007; 홍성운, 2002), 이때 형성된 장애청소년에 대한 태도가 이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합 가능성에 주요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Jones, Pang, & Rodriguez, 2001; 조소이, 2014에서 재인용).

장애청소년이 통합교육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장애청소년에게 가지는 장애수용태도가 장애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박재국, 손상희, 2004) 청소년들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장애수용태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경희(2007)는 남녀별로 차이가 없이 보통이하의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집단따돌림의 현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수용태도는 성공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청소년의 통합에 대한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견해가 덜 개입되고 장애수용태도 인식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발견 지향적 방법으로서 개념도(concept map)를 활용하였다.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접근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그리고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데 유용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특히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 방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인식의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사용하여 최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도구로 양적·질적 연구법을 통합한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다(Daughtry & Kunkel, 1993;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Paulson & Worth, 2002). 또한 척도개발을 하기 전 연구자들의 인식 차원을 통한 문항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관점에서 장애수용태도에 관한 인식의 내용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내용들을 기초로 장애수용태도의 인식에 사용하는 주요 차원을 밝히며,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한 아이디어를 연구자가 가감 없이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이 다시 확인하고 해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통합교육현장에서 현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장애수용태도는 어떤 요인인지와 인식하는 중요도에 대해 탐색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의 차원과 군집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와 같다.

II. 방 법

1. 개념도 연구법

Trochim(1989)이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Kane과 Trochim(2007)이 구체화한 방법으로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방법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접근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 요소, 그리고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특정 경험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또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의 자료를 자신이 구성하는 방식대로 분류함으로써 연구자에 의해 분류되는 방식에 비해 연구자의 편견이 감소될 수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특히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 방법이 연구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인식의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사용하며, 최근 들어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도구로 양적·질적 연구법을 통합한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다(Daughtry & Kunkel, 1993;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Paulson & Worth, 2002). 또한 척도개발을 하기 전 연구자들의 인식 차원을 통한 문항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특정 현상에 대한 연구대상의 질적, 주관적 경험을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이라는 다변량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로서 연구대상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개념도 연구법은 통계적으로는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기초 자료 제시 및 결과물을 얻기 위한 자료 조직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해 준다는 것이 개념도 연구법의 특징이다. 개념도를 활용한 연구 방법은 실제적인 맥락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 접근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이 이들의 경험 내용과 잠재구조를 확인하는 연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oodyear, Tracey,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ochim(1989)이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Kane과 Trochim(2007)이 구체화한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도를 활용하여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밝히고, 도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중요하게 지각하는 정도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견해가 덜 개입이 되고 연구대상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요소, 특히 잠재적 구조를 밝히는 것에 개념도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Johnsen, Biegel와 Shafran(2000)은 개념도 제작에 있어 집단이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Trochim(1989)도 유사하게 단일 개념도 제작에 있어 집단에는 엄격한 제한이 없어 최대 75명에서 80명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10명에서 20여명 정도의 집단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정찬석, 2005에서 재인용).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성공적인 통합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태도에 의해 좌우되며(안은주, 2014; 조소이, 2014), 청소년의 부정적인 수용태도는 통합학급 내에서 장애청소년의 학습뿐만 아니라 적응행동, 학교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통합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를 초래한다(김희규, 2004; 소은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수용태도를 알아보고자 장애청소년들을 잘 도와주는 청소년, 장애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장애청소년과 짝이 되어 도움을 많이 주었던 장애 경험이 많은 청소년 중에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부모들로부터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동의한 21명의 청소년 중에서 3회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아이디어

진술문 작성, 최종 진술문의 유사성분류 및 구조화, 개념도 작성의 참여자로 총 15명이 최종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남자 5명(33.3%), 여자 10명(66.7%)으로 학교급별로 구별하면 중학생은 5명(33.3%), 고등학생은 10명(66.7%)이었다. 15명(100%) 모두 장애청소년과 짝이 되거나 도우미 경험이 있었으며,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내외 프로그램 경험자는 12명(80%)이었으며, 무경험자는 3명(20%)이었다. 1박2일 이상의 장애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자는 4명(26.7%), 무경험자는 11명(73.3%)이었다.

도출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의 중요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청소년들이 통합된 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요도인식조사 설문지를 120부 배부하였으며, 그 중 수거된 111부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02부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인식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를 살펴보면, 남자 42명(41.2%), 여자 60명(58.8%)이었고, 학교별로 구별하면 중학생이 41명(40.2%), 고등학생은 61명(59.8%)이었다.

3. 자료분석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과정을 크게 1단계 개념도를 위한 준비, 2단계 아이디어 산출, 3단계 진술문들의 구조화, 4단계 개념도 분석, 5단계 개념도 해석, 6단계 개념도의 활용의 6단계로 제시하였다.

개념도 준비단계에서는 초점 질문 개발 참여자는 특수교사 5명으로 경력이 12년~21년까지 있으며 특수교육 석사 졸업 2명, 상담심리 박사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5개의 초점 질문에 대해 5점 Likert방식으로 평가하고, 조언을 구하는 ‘초점 질문 평가서’를 e-mail로 발송하여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작성한 초점 질문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현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여겨지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인터뷰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피드백 받았다. 초점 질문 개발 과정 참여자 5인이 초점 질문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1번 “장애청소년과 학교생활을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와 5번 “장애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을 합하여 최종 초점 질문으로 “통합교육 경험 속에서 장애청소년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려면 어떤 태도가 중요합니까?”로 결정을 하였다. 초점질문 개발 참여자들이 추가로 제안한 피드백으로 장애 경험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초점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 초점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개념도 작성 참여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진술문 통합·편집 참여자들은 특수교사 3명으로 경력이 12년~18년 이었으며 특수교육 박사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단계로서 아이디어 진술문 작성, 진술문의 통합, 편집을 통해 도출된 52개의 진술문들을 15명의 진술문의 작성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중요도를 평정하는 단계이다. 개념도 작성 참여자 15명의 분류를 통해 얻은 유사성 자료를 가지고 개인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만들었다.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은 0,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여 연구 참여자 수만개의 52×52 유사성 행렬표를 만든 후 코딩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전체 파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SPSS WIN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 방법 중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ALSCAL은 Takane 등(1977)에 의해 개발되었고,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현대 다차원 척도법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분석 방법이다(박광배, 2000). 다차원 척도법은 주어진 심리적 자료를 특정한 원점과 단위를 가지는 숫자체계로 변환 한 후(유사성 자료를 의미함), 원래의 심리적 자료를 가능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처럼 방대한 정보에 내재된 구조를 찾아내어 정보처리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축약하는 방법이다(박광배, 2000). 군집분석은 사례수가 많은 자료에서 초기 군집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며 잘 구분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좋은 상호 독립적 군집을 형성하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개의 차원 지도위에 각 진술문들이 별개의 점으로 위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것끼리 묶인 진술문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Kane & Trochim, 2007).

위에 산출된 x, y 2차원 상의 좌표 값을 사용하여 세 번째 단계인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 군집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여러 방식 중 개념도에서 군집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Ward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척도 분석에 의해서 점으로 표시된 핵심 문장들 중 군집 분석 결과 같은 군집으로 묶인 문장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에 관련된 요인으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의 내용

개념도 작성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개별이나 2~3명의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자의 초점 질문에 대해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 낼 수 있도록 적절히 촉진하기 위해 개입하였다. 인터뷰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차 인터뷰에 평균 30~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총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류된 핵심 문장을 추출하여 정리한 뒤, 1차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들을 다시 만나 각 핵심 문장들을 분류하고 중요도를 평정하는 절차를 통해 자료를 종합하였다. 3차 인터뷰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 아이디어 진술문을 분류·통합·편집하는 과정으로 우선 각 아이디어 진술문 생성과정 참여자가 도출한 총 85개의 진술문에 아이디어 진술문을 번호를 붙여 아이디어 진술문의 전체 목록을 만들었다. 3명의 진술문 통합·편집·참여자는 이 전체 목록을 Giorgi(1985)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의 4단계를 기초하여 핵심 문장을 정리하였다. Giorgi의 질적 분석 4단계는 1단계 내용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응답 내용을 읽는 단계, 2단계 연구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자로서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구분해 내는 단계, 3단계 의미단위들을 다시 전부 읽어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심리학적 통찰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미단위들이 연구 주제를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단계, 마지막으로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통합하여 피험자의 경험을 잘 보여주는 문장으로 만들고 빈도수가 적은 문장을 제외하는 단계이다.

진술문 통합·편집 참여자는 전체 목록을 보고 1, 2단계를 각자 개인적으로 실시하고 난 후 세 차례에 모임을 통하여 3, 4단계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전체 목록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끝날 때 마다 자신의 의미 단위를 이야기하면 다른 2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일련의 핵심 문장 단어나 구문 또는 문장을 진술문으로 축약하거나 편집 최종 의미단위를 결정하고 그런 뒤 연구자가 문장 형식으로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중복되는 아이디어는 하나로 통일하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시각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제외하여 진술문 통합·편집 참여자들의 동의를 거쳐 정리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52개의 최종 문장이 완성되었다.

최근 국내 연구들(위주원, 최한나, 2015; 이윤희, 2014)에 따르면 약 40~60개 정도의 핵심 문장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 진술문 자료를 종합한 결과 총 85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전체 아이디어 진술문 중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이 언급한 중복된 요소들을 통합시키고 언급하지 않은 요소들은 제거함으로써 52개의 진술문으로 축약하였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의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진술문은 <표 3>과 같으며, 진술문은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청소년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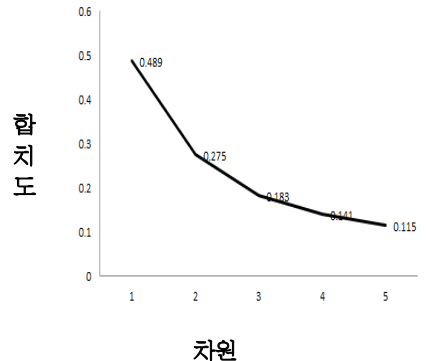
다차원적도 분석에서는 원자료의 정보가 최대한 반영이 되면서 가능한 가장 낮은 차원의 수

로 단순한 공간에서 시각화 하는 것(박광배, 2000)이 중요하다. 다차원적도 분석에서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합치도, 해석가능성, 효율성의 세 가지로 제시된다(이윤희, 2014에서 재인용). 첫째, 합치도는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와 최종적으로 도출된 공간 도면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차이 정도는 스트레스 값(stress value)으로 표현된다. 즉, 스트레스 값은 불일치의 정도로 볼 수 있다(노형진, 정한열, 2006).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 결과로 도출된 차원 상에서의 거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합치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해석가능성은 구분된 차원들이 실제 자극들의 속성에 근거하여 해석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셋째, 효율성은 해석가능성과 합치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하고 적은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나타낸다.

다차원적도 분석 결과치를 보면, 2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합치도는 $.275(R^2 = .627)$, 3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183(R^2 = .743)$, 4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141(R^2 = .802)$, 5차원까지 추출했을 때 $.115(R^2 = .836)$ 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척도분석에서 나타난 각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stress), 설명량(R^2), 설명량 증가의 통계결과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와 설명량

차원	합치도(stress)	설명량(R^2)	설명량 증가
1	.489	.389	
2	.275	.627	.238
3	.183	.743	.116
4	.141	.802	.059
5	.115	.836	.034



[그림 1]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개방형 면담 결과를 토대로 진술문을 종합한 결과 52개의 진술문이 도출 되었으며, 이들 52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275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 - .365)를 충족시킨다(Kane & Trochim, 2006, 최한나,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차원적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627로 중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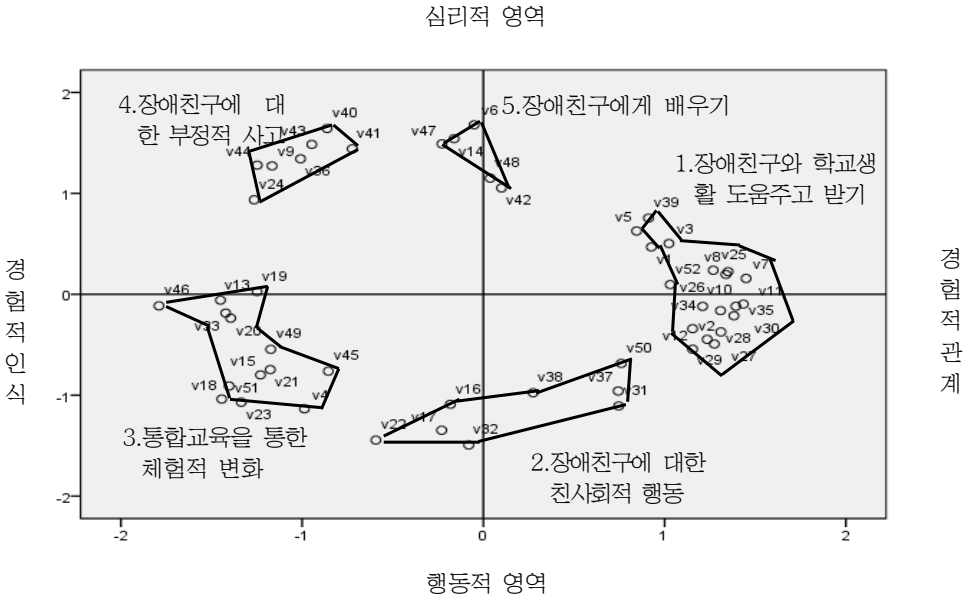
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차원의 수가 2일 때 처음 크게 꺾이는 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Kruskal(1964)은 stress plot이 처음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의 차원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차원에서 2차원에서의 설명량 증가가 .238이며 2차원에서 3차원에서의 설명량 증가가 .116으로 그 이상으로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합치도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 결정하였다.

3. 청소년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군집

청소년들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진술문 52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생성된 2차원 상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군집화하는 계층적 군집 분석인 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초기의 군집 수 K를 규정하여 결정된 초기 군집에 각 개체를 할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집 개수의 범위를 정한 후 가장 적합한 군집개수를 찾아간다(이윤희, 2014). 본 연구에서는 김재희(2008)가 제안한 계층적 군집방법을 통해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정한 후 K-means방법을 사용해 개체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따라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집의 개수를 5개로 정한 후 비계층적 방법을 이용해서 군집을 형성하였다. <표 2>의 최종 군집 중심을 통해 각 군집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1차원 축의 부에서 정의 방향으로 군집 중심이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2, 군집1의 순서로 위치했고, 군집2, 군집5는 축의 중심에 가까웠다. 2차원 축의 부에서 정의 방향으로 군집 중심이 군집2, 군집3, 군집1, 군집4, 군집5의 순서로 위치했으며, 군집1이 축의 중심에 가까웠고, 군집4와 군집5의 군집 중심이 비슷했다.

<표 2>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최종 군집 중심

	군집				
	1	2	3	4	5
표준화점수(1차원)	1.2104	.1799	-1.3009	-1.0315	-.0608
표준화점수(2차원)	.0189	-1.1377	-.5826	1.3429	1.3832



[그림 2]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청소년 인식의 개념도

분류된 5개의 군집을 2차원 상에 표상한 개념도는 [그림 2]와 같으며 개념도 분석 결과는 차원 1과 차원 2에 의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들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원 축을 그렸을 때 군집 3은 4사분면 중 3사분면에 속하고 장애수용태도의 경험적 인식과 행동의 차원을 4군집은 4사분면 중 4사분면에 속하고 경험적 인식과 심리적인 차원을 나타내었다. 또한 1군집은 x축을 중심으로 1사분면과 2사분에 위치하여 장애수용태도의 경험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y축을 중심으로 군집 2는 장애수용 태도의 행동적인 차원을 군집 5는 장애수용 태도의 심리적인 차원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진술문들과 5개의 군집은 4사분면상, 차원1과 차원2에 고루 위치하고 있다. 차원 1, 즉, x축을 기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진술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경험에 따라 왼쪽에는 '경험적 인식'에 대한 진술문이, 오른쪽에는 '경험적 관계'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적 인식 차원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장애청소년들과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장애친구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의 인식,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거부적인 태도와 같은 경험적 인식에 대한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장애친구를 대하는 모습 속에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15번)', '장애친구가 우리 학급에 함께 있는 것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13번)', '소리를 지르거나 수업에 방해하는 행동

을 하는 장애친구는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 낫다(44번)'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경험적 관계 차원에는 장애친구와 실제적인 만남의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진술문들이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애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다(12번)', '장애 친구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 할 수 있다(37번)' 등이 이에 속한다. 차원2에 해당하는 y 축은 장애친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태도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과 행동적인 지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심리적 영역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장애수용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으로 '장애친구들을 통해 화합을 배우게 되었다(42번)', '장애친구들을 만날 때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47번)' 등이 이에 속하며, 행동적 영역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보이는 행동적인 면으로 '장애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 방법을 알려주면 해보고 싶다(38번)', '장애친구가 아프면 양호실에 데려다 줄 수 있다(35번)'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2개의 차원(경험적 인식과 경험적 관계,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기준으로 할 때 진술문들은 4개 사분면으로 나누어 분포된다. 우선 1사분면은 경험적 관계 - 심리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곳에 분류된 진술문은 장애청소년들과 경험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심리적인 영역이 필요한 것들이다. 2사분면은 경험적 관계 -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을 하며 이곳에 분류된 진술문은 장애청소년들과 경험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타적, 친사회적, 공감적인 행동적 영역이 필요한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사분면은 경험적 인식 -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며 이곳에 분류된 진술문은 통합교육의 경험적 이해와 부정적 거부적인 태도와 같은 인식과 행동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4사분면은 경험적 인식 - 심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에 대한 심리적인 면의 진술문들이 속한다.

셋째, 각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장애친구와 학교생활에서 도움주고 받기'로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청소년으로부터 경험적으로 배우고 알게 된 학교일상의 생활적인 면, 장애청소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y 축의 정적인 방향으로 갈수록 심리적인 면으로 장애친구와의 관계 맺기를 위한 우정과 같은 것으로 배려심과 도와주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진술문(예, 우정 쌓기, 일상생활하기, 친구사귀기 등)이 있다. y 축의 부적방향으로 갈수록 실제로 장애친구와 학교,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관계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둠활동, 점심식사, 쉬는 시간, 방과 후 활동, 과제해결하기 등의 진술문(예, 숙제하기, 문자전화 주고받기, 모르는 것 알려주기 등)이 있다. x 축의 정적인 방향으로 갈수록 친구를 사귀거나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관계를 할 수 있는 진술문(예, 장애친구에게 재미있는 책을 빌려주거나 준비물 빌려주기, 양호실 데려다 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2는 '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거나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x 축의 정적인 방향으로 갈수록 장애친구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표현을 의미하며 x 축의 부적적인 방향으로 갈수록 기다리고 격려하고 보살피 주는 행동 표현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3은 '통합

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로 장애친구에 대해 모든 청소년들이 통합교육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다양성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식교육의 필요성, 장애의 특성 이해에 관련된 진술문들이다. 군집 4는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로 장애친구로 인한 심리적인 경험적 인식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두려움, 친구나 이성관계로 지내기에 대한 꺼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군집 5는 '장애친구에게 배우기'로 장애친구와 지내면서 배우게 된 감정, 마음, 순수함, 온정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 문항에 대해 5개의 군집 및 52개의 진술문이 나타났으며 <표 3>과 같다.

<표 3> 최종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군집	청소년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8 장애친구와 같은 조가 되어 활동을 할 수 있다.
	26 장애친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25 길에서 장애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7 장애친구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잘 어울려 놀 수 있다.
	52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괜찮다.
<군집1> 장애친구와 학교 생활에서 도움 주고 받기	1 장애친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다.
	3 장애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우정을 쌓고 싶다.
	5 장애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다.
	39 장애 친구와 다음에도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27 장애친구와 함께 TV나 비디오를 보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다.
	29 장애친구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28 장애친구와 함께 숙제를 할 수 있다.
	2 장애친구를 내 친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12 장애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고 싶다.
	11 장애친구가 준비물을 가져 오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다.
(19개)	35 장애친구가 아프면 양호실에 데려다 줄 수 있다.
	10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장애친구에게 빌려주고 싶다.
	30 교실에서 장애친구와 가까이 짝이 되어 앓을 수 있다.
	34 장애친구가 학급의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17 장애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32 장애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듯이 똑같이 배려해 주면 된다.
	16 장애친구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한다.
	22 장애친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31 장애친구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7 장애친구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
(8개)	50 장애친구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38 장애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 방법을 알려주면 해본다.

군집	청소년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3> 통합 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 (13개)	20 장애친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33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3 장애친구가 우리 학급에서 함께 있는 것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9 장애친구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46 장애친구도 학교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18 장애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23 장애친구에 대한 정기적인 장애인식교육이 필요하다.
	51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15 교사가 장애친구를 대하는 모습 속에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21 누구나 완벽한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된다.
	49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준다.
	4 장애친구도 우리가 놀아주면 말도 더 잘하고 잘 어울린다.
	45 장애친구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닌 장점을 보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군집4> 장애 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 (7개)	36 장애 친구가 같은 반인 것은 상관없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다.
	43 경우에 따라서 장애친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이성 친구 관계는 될 수 없다.
	40 행동이 과격한 장애친구는 두렵다.
	41 장애친구를 친구로 사귀는 것은 웬지 꺼려진다.
	9 장애친구에게 상처 받을까봐 불안하다.
	44 소리를 지르거나 수업에 방해하는 하는 행동을 하는 장애친구는 특수학교에 가는 것이 더 좋다.
	24 장애친구들은 그들끼리 수업하는 것이 더 낫다.
<군집5> 장애 친구에게 배우기 (5개)	42 장애친구들을 통해 화합을 배우게 되었다.
	48 장애친구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 대처방법을 배우게 된다.
	14 장애친구의 모습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47 장애 친구를 만날 때 특별한 온정을 느낄 수 있다.
	6 장애친구를 통해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4.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중요도 인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청소년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 52개의 진술문에 대해 중요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10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진술문의 중요도를 5점 Likert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는 진술문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장애수용태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식수준을 구체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52개의 전체 진술문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3.9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은 '보통이다' 이상 '중요하다'에 근접하게 평가하였다(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2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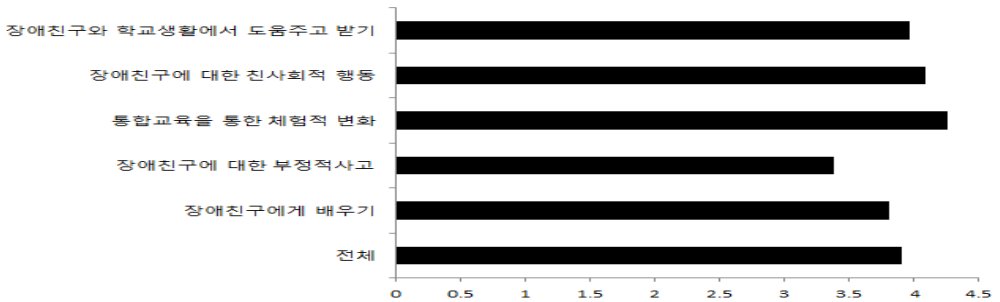
다, 4점: 중요하다, 5점: 매우 중요하다). 개별 진술문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2.98부터 4.59까지로 분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수용태도를 설명하는 52개 진술문에 대해 청소년들은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진술문은 '46번: 장애친구도 교실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M=4.59)', '19번: 장애친구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M=4.57)', '49번: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준다(M=4.51)'을 들 수 있다. 이는 장애친구와의 통합교육의 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술문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36번: 장애친구가 같은 반인 것은 상관없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다(M=2.98)'로 평균 중요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장애수용태도 진술문 내용에 연구 참여자가 평가한 중요도를 연구에서 분류된 군집별로 산출한 중요도 결과는 <표 4>, [그림 3]과 같다.

청소년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를 비교해 볼 때 군집3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의 중요도 평균이 가장 높았다(M=4.26). 이는 청소년들은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친구에 대해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다양성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식교육의 필요성,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장애수용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군집4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3.38). 이는 장애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두려움, 장애친구에서 받은 상처로 인식된 부정적인 면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군집별 상대적 중요도는 군집3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M=4.26)', 군집 2 '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M=4.09)', 군집 1 '장애친구와 학교생활에서 도움주고 받기(M=3.97)', 군집 5 '장애친구에게 배우기(M=3.81)' 군집4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M=3.38)'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군집 명		M	SD
군집 1	장애친구와 학교생활에서 도움주고 받기	3.97	0.56
군집 2	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4.09	0.56
군집 3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	4.26	0.49
군집 4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사고	3.38	0.77
군집 5	장애친구에게 배우기	3.81	0.66
전체		3.90	0.40



[그림 3] 청소년이 인식한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군집별 중요도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청소년과 상호작용하며, 생활하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장애수용태도에 대해 인식하는 내용과 차원은 어떠하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념도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 장애수용태도의 인식 차원과 구조,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장애수용태도 진술문들은 경험적 인식과 경험적 관계의 차원,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차원, 2개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였고, 경험적 관계 - 심리적 영역, 경험적 관계 - 행동적 영역, 경험적 인식 - 행동적 영역, 경험적 인식 - 심리적 영역의 4개 사분면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경험적 인식과 경험적 관계'의 차원을 볼 때, 청소년들은 장애수용태도 내용을 청소년과 장애청소년간의 관계성이나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것과 청소년의 일방적 이해와 인식에 기초하는 것을 하나의 차원에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 등에서 분류한 통합교육의 태도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간접경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는 경험적 인식의 경향이 강하고, 교제, 사귀, 학업, 학교생활, 취미 오락 활동, 사회생활, 접촉의도, 실제적 접촉, 접촉 빈도, 행동적 요소 및 행동의도 등은 경험적 관계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차원을 보면, 일반적인 태도의 구성요소 중에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는 심리적 영역에, 행동적 태도는 행동적 영역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들이 장애수용태도를 심리적-행동적 영역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태도를 내재적 특성이자 구성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로 파악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소은

진(2012)과 정상수(2014)은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내재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태도를 각 하위 영역별로 행동적 태도,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으며, 주민영(2014)도 장애수용태도를 인지적 영역-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 정서적 영역-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행동적 영역-행동의도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청소년이 장애수용태도를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으로 차원으로 인식하는 결과는 앞의 선행연구와 맥락이 유사하며, 장애수용태도를 내재적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파악한 선행연구의 의의를 지지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유사하게 인식하는 각 군집별로 진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장애친구와 학교생활에서 도움주고 받기)의 진술문은 일상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수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었고, 통합교육의 각 장면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기초로 장애친구와의 관계 맺기, 함께하기, 장애청소년을 위한 도움주기, 배려하기 등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진술문은 태도의 행동적 구성요소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인지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진술문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정서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진술문은 매우 적었다. 이는 청소년이 관계 또는 상호작용에서 행동(의도)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집 2(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진술문은 장애친구에 대한 배려와 격려,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의도), 장애친구 도움행동(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진술문들은 태도의 행동적 구성요소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기다려줘야 한다'는 일부 수동적 태도(의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적극적인 행동(의도)로 표현되었다.

군집3(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의 진술문은 친구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장애와 장애친구에 대한 이해와 인식, 통합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편, 군집3은 진술문의 대부분이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구성요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념도에서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된 특징을 보였는데, 군집3에서는 Y축에 대한 차원의 분류를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이 아니라 심리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개념도의 차원을 2개로 분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소년들이 장애수용태도에 대해 다소 혼재된 형태로 이해하고 있거나, 개념상 유사성이 정확히 분류하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군집4(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진술문은 장애친구에 대한 무관심, 거부 또는 배제하는 마음이나 생각, 장애친구(이상행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술문들이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구성요소로 되어있으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군집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표현된 특징을 가진다.

군집5(장애친구에게 배우기)는 장애친구 및 장애친구와의 생활로부터 배우는 점(유익함), 장애친구에 대한 호의적인 느낌(온정, 순수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술문들은 태도의 인지적, 정서적 구성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군집3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

념도에서는 별도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장애수용태도는 대부분 장애청소년의 관점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것임에 비해, 군집5의 진술문들은 장애청소년인 대상보다 수용자인 청소년들의 자신의 입장과 관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을 살펴보면,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52개의 모든 진술문에 대한 전체 평균 중요도가 '중요하다'에 근접하였고, 각 개별 진술문에 대해서도 평균 중요도가 2.98에서 4.59까지 분포되며, '보통이다' 수준 이상으로 평균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진술문은 '46번: 장애친구도 교실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M=4.59)', '19번: 장애친구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M=4.57)', '49번: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준다(M=4.51)'인 반면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진술문은 '36번: 장애친구가 같은 반인 것은 상관없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다(M=2.98)'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진술문에 대해 대부분 '중요하다'고 평가한 결과는 본 연구의 장애수용태도의 진술문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고, 진술문을 청소년들에게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하며, 개별 진술문의 중요도 인식 내용을 개념도 활용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군집3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M=4.26), 군집2 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M=4.09), 군집1 장애친구와 학교생활에서 도움주고 받기(M=3.97), 군집5 장애친구에게 배우기(M=3.81), 군집4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M=3.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와 '장애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군집은 '중요하다' 수준의 높은 평균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소년들은 개념도에서 Y축의 행동적 영역과 X축의 경험적 인식에 위치하는 군집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소년들이 개념도에서 심리적 영역보다 행동적 영역을, 경험적 관계보다 경험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집3 통합교육을 통한 체험적 변화를 중요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친구들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장애와 장애친구에 대한 이해와 인식,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이해 등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 확대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는 장애이해 교육에 대한 경험 등이 실제로 장애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애친구에 대한 부정적 사고(M=3.38) 군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술문 52개 중에서 대부분이 긍정적, 수용적 표현이었고, 부정적, 거부적 표현은 일부인 7개에 불과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이런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이 장애수용태도에 대해 중립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기보다 장애친구의 입장을 고려한 수용자의 관점을 전제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은 장애친구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합교육을 경험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집단은 조력 활동에 대한 수용 태도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조소이, 2014)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도 장애청소년으로부터 또는 장애청소년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와 유익함을 장애수용태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다음의 진술문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친구가 우리 학급에서 함께 있는 것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친구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교사가 장애친구를 대하는 모습 속에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장애친구들을 통해 화합을 배우게 되었다. 장애친구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 대처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통합교육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장애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향상, 인간의 다른 점에 대한 수용의 증진, 상호 지원하는 우정의 경험을 줌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경험(박승희, 1994)이 되며, 장애청소년을 수용하는 능력이 촉진되고 장애청소년과 청소년간의 유사성에 대한 이해 증진(최성규, 오원석, 허명진, 송혜경, 2008)되고, 장애청소년에 대한 동정심과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강화(Carter & Hughes, 2006; Cole, Waldron, & Majd, 2004; Foreman et al., 2004)되며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는 기술이 발달(Salisbury, Palombaro, & Hollowood, 1993)하고, 자존감(self-esteem) 향상과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Staub et al., 1996; 신영선 2009에서 재인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탐색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차원과 내용, 중요도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이고 장애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교육, 실천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그 동안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현실에서 제한적이거나 탐색적인 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로 장애수용태도에 대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52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2개의 차원과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의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집된 결과이며, 통합교육 조건에서의 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 연구 및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서 개념도의 연구법을 따랐으며 청소년들이 발달단계에서 인식하고 있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해 그대로 알아보고자 연구자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여, 통합교육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반영되었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되었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의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의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아이디어 진술문 작성, 구조화, 개념도 작성이 장애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고, 장애청소년과 짝이 되어 도움을 많이 주었던 통합교육 경험이 많은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졌고,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참여자 표본이 102명이었으므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의 차원과 중요도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설명 전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합교육의 또 다른 구성원인 장애청소년이나 교사 등이 인식하는 장애수용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와 비교대상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주체를 교사나 장애청소년으로 인식하거나 장애수용태도에 방법적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긍정적인 장애수용태도에 초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합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군과 무관심한 군 등 다양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긍정과 부정적인 태도 등 전반적인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인식을 추후 연구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이 장애수용태도에 대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친구의 입장을 고려하는 수용자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장애친구들에 대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 수용하는 단계라는 것은 향후 교육의 방향이나 연구의 목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장애수용태도를 '좋음과 나쁨'으로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느냐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거나 인접 개념으로의 외연 확대 등 질적 심화를 고민하고, 관심의 초점 방향을 돌려야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장애수용태도를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별 상황과 환경에서 태도와 관련된 세부 항목별로 장애수용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시계열상의 측정과 파악을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차원과 군집 및 중요도는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거나, 장애수용태도의 긍정적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서 그러한 계획의 기초로서 활용되거나 프로그램 개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원위원회(2005). **학령기 장애아동 통합교육 현황실태 조사**.
- 김경숙(2011).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경희(2002). 초등학교 장애아동의 집단 따돌림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희(2008). **SAS를 이용한 다변량 통계 분석**. 서울: 교우사.
- 김희규(2004). 장애이해교육이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11(2), 47-68.
- 민정현(2011). 5요인 성격특성이 중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박광배(2000). **다차원 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재국, 손상희(2004).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 중등학생의 태도.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155-182.
- 배현주(2008). 협동 활동 중심 미술치료가 자폐성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소은진(2012). 통합학급 고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향상을 위한 공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영선(2009). 통합교육경험의 유무에 따라 초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이타행동, 공감이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은주(2013). 청소년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 조사-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위지원, 최한나(2015). 한국사회 다문화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0, 87-130.
- 이소현, 박은혜(2002).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윤희(2014).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증상 :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상열(2007). 장애인 시설 봉사·체험활동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수용 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전영숙(1999).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경희(2007). 통합교육환경에서 초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찬석(2005).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 측면 탐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조소이(2014).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미옥(2004). 자아존중감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성규, 오원석, 허명진, 송혜경(2008). 통합교육에 대한 비장애 아동 태도 검사 도구의 타당성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1), 301-330.
- 홍성운(2002). 청소년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Bishop, L. E. (1986). Identifying the components for success in mainstreaming.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80(9), 939-946.
- Carter, E. W., & Hughes, C. (2006). Includ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neral education class; Perspectives of general and educators, paraprofessionals, and administrator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1, 174-185.
- Daughtry, D., Kunkel, M. A. (1993). Experience of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 concept m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0, 316-323.
- Foreman, P., Arthur-Kelly, M., Pascoe, S., & King, B. S. (2004). Evaluating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students with profound and multiple disabilities in inclusive and segregated classroom settings: An Australian perspective.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29, 183-193.
- Giorgi, A. (198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In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pp.12-18). Philadelphi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odyear, R. K.,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Gottlieb, J., Semmel, M. I., & Veldman, D. J. (1978). Correlates of social status among mainstreamed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396-405.
- Johnsen, J. A., Biegel, D.E., & Shafran, R.(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Jones, E. B., Pang, V. O., & Rodriguez, J. L.(2001). Socail studies in the elementary classroom : Culture matters. *Theory into Practice*, 40(1), 35-41.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cep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6, 317-324.
- Townsend, M., Wilton, K. M., & Vakilirad, T. (1993). Children's attitudes toward pe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37, 405-411.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9월 7일 / 게재 승인 2016년 9월 7일

* 한수진: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E-mail: sool050@naver.com

*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 E-mail: becoming@incheon.ac.kr

Abstract

Disabilities Acceptance Attitude of the Adolescence Using the Concept Mapping*

Han, Soo-Jin**

Lee, Jee-Yon***

As the adolescents' attitude of accepting disabilities have increasingly important meanings in the integrated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dimension of the adolescents' attitude of accepting disabilities recognized in adolescents' perspective, and what is important to think of, by using concept mapping which adolescents' involved directly. This study, the total 52 statements of the adolescents' attitude of accepting disabilities recognized in adolescents' perspective were derived, and which were recognized in two dimensions of empirical recognition to empirical relationship, psychological region to behavioral region, and which were grouped into five clusters based on the similarity by adolescents'.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t level of the adolescents' attitude of accepting disabilities, adolescents' evaluated close to 'important level' (3.9 of 5) at the average of all statements'. And they think of cluster3; 'understanding of the integrated education with disability friends(M=4.26)' and cluster2; 'pro-social behavior for disability friends(M=4.09)' relatively important than other clusters.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adolescents' attitude of accepting disabilities,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a proposal for the further studies. Implication for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and future research on career and vocation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Disabilities Acceptance Attitude, Adolescence, concept mapping

* This work was summarized and quoted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Soo-Jin Han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2016).

** First author, Graduate schoo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